

“What is this World?”: *The Knight’s Tale*, *The Man of Law’s Tale*, *The Franklin’s Tale*, *The Physician’s Tale*에 나타난 Chaucer의 역사관¹⁾

김 현 진

1.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사도와 현실로서의 시민계급의 부상

Johan Huizinga는 어느 시대에나 이상적인 삶을 성취하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 “세상을 등지는(forsaking the world)” 소극적인 방법이 있으며, 둘째, “세상을 개선(amelioration of the world)”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²⁾ 그리고 셋째로, 환상을 만들어내는 방법, 즉 현실을 피하여 아름다운 허구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For there is a third path to a world more beautiful, trodden in all ages and also the most fallacious of all, that of the dream. A promise of escape from the gloomy actual is held out to all; we have only to color life with fancy, to enter upon the quest of oblivion, sought in the delusion of ideal harmony.³⁾

중세 말기에 있어, 당대와 당대의 주도세력이 제시한 바 이상적인 삶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침의 하나는 기사도로 대변되는 지배계급의 배타적인 이념이었다. 기사도는 파괴와 혼돈으로 가득 찬 현실에 나름대로의 질서를 부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기에, 그 이념을 신봉한 이들에게는, Huizinga가 말한 바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향한 두번째 길을 택함에 있어, 즉 사회를 개선하려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척도였다. 그러나 아울러, 이미 현실에서 존재기반을 상실한 과거의 가치를 규범으로 삼고 그것을 구현하고자 하였기에, 자기만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Huizinga의 세번째 길, 즉 “이상적인 조화의 망상(the delusion of ideal harmony)”에 빠져들 수 밖에 없었다.

Arnold Hauser에 따르면, 기사계급은 위낙에 “온갖 잡동사니 가문” 출신으로 “직업적 신신분에 지나지 않던 종신”들이었으나, 봉토를 지급받고 배타적인 특권을 부여받음에 따라, “세습적인 신분인 기사”로 승격되어, 12세기 말 13세기 초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과 엄격히 구분되는 폐쇄적인 계급”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는 기사도의 규범이 고래로 특권계급에 속해있던 구귀족들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이 “신풍 귀족들의 자의식과

1) “What is this world?”는 *The Knight’s Tale*, 2777행에서 인용. 앞으로 *The Canterbury Tales*의 텍스트로는 Geoffrey Chaucer, *The Complete Works of Geoffrey Chaucer*, ed. F.N. Robinson (Oxford: Oxford UP, 1974)를 사용하겠다.

2) Johan Huizinga, *The Waning of the Middle Ages* (New York: Doubleday Anchor, 1924) 37.

3) Huizinga, 38.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로이 특권계급에 편입된 이들은 자신이 속한 계급과 다른 계급을 구별해 줄 이념의 필요성을 구귀족보다 더 절실히 느꼈고, 이러한 요구가 만들어 낸 것이 기사도 규범이라는 것이다.⁴⁾

하지만 Hauser가 주장한 바 기사로 통칭되는 봉건 귀족계급이 세습적인 지배계급으로 정착하게 된 13세기경에 이르면, 귀족과 농민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출생신분이 부여한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시민계급이 “아직 완전히 대접받는 계급은 아니지만 여하튼 무시할 수 없는 계급”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⁵⁾ 시민계급이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화폐경제의 대두와 이에 따른 자본주의적 세계관의 태동이라는 변혁에의 맹아가 잠재하고 있었다. 세상은 더이상 Arthur왕과 원탁의 기사같은 전설적인 영웅에 의해 주도되던 활극의 무대가 아니었다. 갑옷을 입은 기사는 마상시합(tournament)이나 로망스의 세계에서만 위용을 뽐낼 뿐 점차 그 현실적인 토대를 잃어가고 있었다. 십자군 원정 역시 명분만이 빛났을 뿐 득없는 패배의 연속이었다. 세상을 움직이는 데에는 그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 시대에 있어 플랑드르 도시들의 번성과 도시 세력을 바탕으로 부흥했던 Burgundy가의 영광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시민계급의 막강한 부였다. 하지만 Huizinga의 지적처럼, 이 시기의 연대기 사가인 Chastellain은 “사치스런 궁전의 광채와 장엄함에 현혹되어, Burgundy가의 권력이 영웅주의와 기사도에의 혼신 덕택이라고 생각했다(Nevertheless, dazzled by the splendor and magnificence of an extravagant court, Chastellain imagined that the power of the house of Burgundy was especially due to the heroism and the devotion of the knighthood).”⁶⁾

이러한 Chastellain식의 생각은 스스로에게는 신념이었으나, 현실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그 시대를 객관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환상일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다른 모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중세인들, 특히 중세의 특권계급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일된 환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환상은 그들이 신봉한 기사도 규범의 본질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었다. Huizinga는 심지어 중세의 봉건귀족이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기사도의 가면을 썼다고 까지 말한다.

In order to forget the painful imperfection of reality, the nobles turn to the continual illusion of a high and heroic life. They wear the mask of Lancelot and of Tristram. It is an amazing self-deception.⁷⁾

그들의 환상은 정말로 자기 기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자기 기만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었다. Huizinga가 지적하고 있듯이 중세의 기사도는 한 걸음 나아가 현실과 역사를 해석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관점과 틀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던 것이다.

The conception of chivalry constituted for these authors a sort of magic key by the aid of which they explained to themselves the motives of politics and of history. The confused image

4) 아놀드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고대중세 편」, 백낙청 譯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6) 227-231 참조.

5) 하우저, 224.

6) Huizinga, 59.

7) Huizinga, 80.

of contemporaneous being much too complicatory for their comprehension, they simplified it, as it were, by the fiction of chivalry as a moving force (not consciously, of course). [.....] It served them as a formula to understand, in the poor way, the appalling complexity of the world's way. What they saw about them looked primarily mere violence and confusion.⁸⁾

현실은 변화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로망스의 세계나 영웅서사시의 세계를 꿈꾸고 있었고, 때문에 세상이 그들이 신봉하는 기사도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또 실제로 그렇다고 믿고자 하였던 것이다.

기사계층이 폐쇄적인 지배계급으로 정착하면서 굳게 닫혀졌던 신분상승의 통로는 중세가 말기로 접어들에 따라 점차 그 자물쇠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지배계급은 그들의 배타적인 특권이 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지만, 새로운 계급, 즉 제3계급의 부상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Barbara Tuchman에 따르면 이 시기의 유력한 시민계급들은 실제로 봉건귀족계급이 누리던 특권의 일부를 향유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다.

The upper class of the Third Estate, made up of merchants, manufacturers, lawyers, office holders, and purveyors to the crown, had nothing left in common with its working class base except the fact of being non-noble. To overcome the barrier was every bourgeois magnate's aim. While climbing toward ennoblement and a country estate, he emulated the clothes, customs, and values of nobles and on arriving shared their tax exemption - no small benefit.⁹⁾

이러한 시민계급의 신장은 결코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일부가 면세 특권을 누리기까지 그들의 지위가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향상되어 왔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Tuchman의 지적이 옳다면, 귀족의 규범을 흉내내기에 급급했던 이들 시민계급의 상층부에게서 독자적인 계급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한 일이었을 것이다. 사회는 변화일로에 있었지만, 기사도라는 “마술열쇠(magic key)”가 주는 매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 듯하다. 기사도는 단순히 귀족계급의 도덕적이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열망의 대상이었던 그 특권계급의 배타적 기득권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자기 계급의 규범을 신봉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속하지 못한 계급의 규범을 쫓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빚어졌을 묘한 갈등과 이질감은 이 변화의 시기를 결정짓는 하나의 의미있는 풍속도가 되었을 것이다.

*The Canterbury Tales*의 *The Knight's Tale*, *The Man of Law's Tale*, *The Franklin's Tale* 및 *The Physician's Tale*은 그 첫번째 이야기가 기사도의 이념을 온전하게 구현하려는 봉건귀족의 노력을, 나머지 세 이야기가 귀족계급에로의 신분상승을 피하기 위해 귀족이념의 표면적 형식만을 추종하는 새로운 상승세력의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 본 중세 말기의 사회문화적 특징의 일부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 Knight가 Huizinga가 말한바 “마술 열쇠(magic key)”로, 환상으로 장식된 로망스의 방안에서 현실로 통하는 문을 닫음으로써 그 현실로부터 밀려들어

8) Huizinga, 68.

9) Barbara W. Tuchman, *A Distant Mirror: The Calamitous 14th Century* (New York: Ballantine Books, 1978) 157.

오는 혼돈의 고통에 맞서 싸우려한 사람이라면, *Man of Law*와 *Franklin, Physician*은 현실 세계에서 그 찬란한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기 것이 아닌 열쇠를 갖기를 바랬던 사람들 이었다.

2. *The Knight's Tale*

중세의 귀족 사회는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과장의 연속이라고 까지 여겨질 정도의 세밀하고도 엄숙한 형식으로 가득차 있었던 것 같다. Huizinga는 중세의 이러한 형식주의를 “거의 종교적인 의미(almost religious significance)”를 지니는 것으로 까지 보고 있다.

The extreme importance which attached to questions of precedence and etiquette can only be explained by the almost religious significance ascribed to them wherever tradition is strong, and where a primitive spirit still prevails. They contain, so to say a ritualistic element. All forms of etiquette are elaborated so as to constitute a noble game, which, although artificial, has not yet degenerated altogether into a vain parade. Sometimes the polite form takes such an importance that the gravity of the matter in hand is lost sight of.¹⁰⁾

그리고 그는 중세인들이 예절이라는 형식으로부터 “윤리적 가치”를 의식하기 보다는 차라리 “미학적 가치”를 느꼈을 것이라고 말한다.

It would, perhaps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at the end of the Middle Ages people were still fully conscious of the ethical value of politeness; but surely people still felt its aesthetic value, which makes the transition of these forms from sincere professions of affection to arid formalities of civility.¹¹⁾

Huainga가 “무미건조한 형식성(arid formalities)”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중세적 형식주의는 기사도 정신의 중요한 속성의 일면을 설명하는 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기사도라는 것 자체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삶에 그들이 부여하기를 원했던 고도로 장식된 아름다운 틀이었기 때문이다. *Knight's Tale*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 형식미이다.

*Knight's Tale*은 대단히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진 이야기고, 우리는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상호관계와 사건의 진행이 모두 엄밀하게 구축된 대칭적 구도를 따라 맷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야기는 장례식 장면으로 시작해 장례식 장면으로 끝난다. 그리고 아테네의 테베 정벌로 시작해 결혼을 통한 아테네와 테베의 화합으로 끝을 맺는다. Emelye와 Palamon, Arcite는 삼각관계로 얹혀있으며, Theseus는 Palamon과 Arcite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와 대응하는 Planet의 세계에서는 각기 Emelye, Palamon, Arcite의 수호신인 Diana와 Venus, Mars 사이의 삼각관계가 성립되고, 지상에서의 Theseus처럼 Saturnus가 Venus와 Mars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가 된다.¹²⁾ 한 편이 이야기의 원전인 Boccaccio의 *Theseida*에서는 Arcite가 Emelye의 사랑을 얻는 유일한

10) Huizinga, 43.

11) Huizinga, 46.

12) Charles Muscatine, *Chaucer and the French Traditio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3) 175.

주인공이고, Palamon은 “부수적인 인물(a secondary figure)”로 나타나나, *Knight's Tale*에서는 이 두 인물 사이의 차이점이 사소한 차원으로 축소되고 둘 사이의 대칭관계가 강조된다. Emelye를 처음 보았을 때 Palamon과 Arcite가 보이는 유사한 반응, Arcite가 석방되었을 때 이들 둘이 서로 상대방을 승리자라고 추켜세우며 하는 불평, 숲에서 결투를 할 때 한 사람은 “a wood leon”에 다른 한 사람은 “a cruel tigre”에 비유되는 것, 그리고 각기 Venus와 Mars의 사당을 찾아가 올리는 동일한 형식의 기도 등이 모두 두 인물에 대한 Chaucer의 균형잡힌 배려를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둘 사이의 첫 결투가 이루어진 숲에 원형경기장이 세워지며, 다름아닌 바로 그 장소에 Arcite의 무덤이 만들어진다. 모든 구도가 정제된 형식의 한 표본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듯 형식에 치중하는 특성은 비단 *Knight's Tale*의 짜임새에서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곁보기에 Palamon과 Arcite라는 두 연인의 로망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 2248행에 이르는 이야기의 상당부분은 이들의 사랑과 적절적 연관이 없는 의례적 절차를 묘사하는 테에 할애되고 있다. 원형경기장의 묘사(1881~2088), 각각 Palamon과 Artice를 지지하는 기사들의 행렬(2089~2189), Theseus의 이들에 대한 격식을 갖춘 접대(2190~2208), Palamon, Emelye, Artice의 기도(2209~2437), 마상시합 장면에 대한 상세한 묘사(2483~2662), 시합이 끝난 후 Theseus가 베푼 향연(2700~2742), Arcite의 장례식(2853~2966)등 의례(ceremony)에 관계된 내용이 무려 893행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형적이라 만큼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Palamon과 Artice, Emelye 같은 주요인물들에 대한 묘사는 다소 인색하고 절제되어 있는데 반해, Lygurge와 Emetrius 같은 인물에게는 무려 68행에 이르는 상세한 묘사(2128~94)가 덧붙여져 있다. 더우기 이해하기 힘든 것은, 사건의 전개상, 이 두 사람이, 등장할 때 할애된 묘사의 분량만큼의 중요성을 지니지 못하는 주변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례(ceremony)에의 집착에 가까운 관심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단지 작품의 통일성을 해치는 사설에 불과한 것인가? 이러한 형식에의 세심한 배려가 앞서 말한 작품의 면밀히 계산된 구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

Charles Muscatine의 주장은 암시적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 듯하다. 그는 *Knight's Tale*의 주 관심사가 “귀족적 삶의 본질”에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 전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The Knight's Tale is essentially neither a story nor a static picture, but rather a sort of poetic pageant. Its design expressed the nature of the noble life.¹³⁾

앞서 우리는 중세 귀족사회에 있어 형식이 지니는 중요성을 살펴본 바 있다. Huizinga의 지적대로라면 중세의 봉건 귀족들은 본래의 목적은 망각할지언정 형식의 미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 형식과 의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 본질을 둘러싼 접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형식이 곧 내용을 규정하고,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Knight's Tale*의 General Prologue의 Knight가 그러하듯 봉건귀족의 기사도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작품이라면, 그 타당성의 일부는 귀족계급의 사고방식과 닮아있는 이야기의 세련된 형식미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지

13) Muscatine, 181.

고의 영예는 단순한 무훈과 기사다운 용기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결투를 하더라도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야 하고, 영웅이 죽은 뒤에도 장엄하고 화려한 장례식이 치뤄진 후에야 그 업적이 치미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order, 혹은 “degree”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Theseus는 결투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든 양편의 기사들을 “모두 그 신분에 따라(everich at his *degree* [2192])” 속박시키며, 시합이 끝난 후에는 그들에게 역시 “신분에 따라(After *hir degree* [2735])” 선물을 나누어준다. 이어서 그는 Arcite가 죽은 후 무덤을 만들기 위해 “그의 신분에 걸맞는 가장 영예로운(moost honourable in his *degree* [2856])” 장소를 고르며, 그의 장례식을 “그의 신분에 어울리는 보다 고귀하고 장엄한(The moore noble and riche in his *degree* [2888])” 것으로 치르기 위해 여러가지 배려를 한다. 즉 모든 일에 있어 “degree”가 고려되는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현실의 고통스러운 불완전함을 잊기 위해 귀족들은 고귀하고 영웅적인 삶의 꿈임없는 환상으로 눈을 들렸다”고 한 Huizinga에게로 돌아가 보자.¹⁴⁾ 중세 귀족의 형식주의는 그리고 *Knight's Tale*에서 기형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례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 세상사에 나름대로의 질서를 부여하려 했던 노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귀족들이 식사와 오락 등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에서부터 교수형 결차에 이르기까지, 계급과 체면에 걸맞는 세세한 형식과 절차를 만들어낸 것이 Huizinga의 지적처럼 실제에 있어 고통스러웠고 혼란스러웠던 현실에 환상적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봄부림이었다면, *Knight's Tale*에서 보여지는 지나치게 정제된 구조와 의례에의 과도한 집착도 어쩌면 그 형식과 의례의 이면에 가리워진, 그들이 보기에 무질서한, 현실에 나름대로의 질서를 일으켜 세우려는 작업이었을 것이다. “이 원동력이 확고부동하고 영원하리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 질서에 의해 알 수 있을 것이다. (Thanne may men by this ordre wel discerne / That thilke Moevere stable is and eterne [3003~4])”라는 Theseus의 말은 모든 인간사를 포괄하는 궁극적 질서로서의 신의 섭리를 제시하지만, 사실 *Knight's Tale*에는 Theseus의 마지막 연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보다는 세상사의 불가해함과 고통스러움에 대한 증거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

Arcite는 Perotheus의 도움으로 석방된 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인간은 술취한 사람이 자기 집은 알지만 그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것처럼 세상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하여, 인간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한탄한다(1260~1264). 한편 Arcite가 석방된 것을 알게 된 Palamon은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죄없이 고통받게 하는 세상의 섭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1313~4). 그리고 Venus, Mars, Diana의 사당에 그려진 벽화는, 사랑 때문에, 혹은 전쟁으로, 혹은 여신의 미움을 사, 고통받거나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만을 담고 있다. 또한 Saturnus는 자신이 사람을 익사시키거나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목을 매달게 하거나 득실시킬 수도 있으며, 탑이나 성벽을 허물고 병을 주고 반역을 부추기는 것도 자기 소관이라고 말한다(2456~69). 여기서도 천체의 운행이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만이 예시된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Arcite는 인간사의 허망함을 한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Allas, Myn hertes queene! allas, my wyf!
Myn hertes lady, endere of my lyf!

14) 본 논문 p.3 참조.

What is this world? what asketh men to have?
 Now with his love, now in his colde grave
 Allone, withouen any compaignye." (2775-79)

Arcite가 죽고난 뒤 Theseus는 Palamon과 Arcite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Arcite는 영광의 절정에서 요절했지만 그 때문에 그의 명예가 더욱 빛난다고 하여, 그를 기사도 정신의 정수로 찬양한다.

"And certeinly a man hath moost honour
 To dyen in his excellency and flour,
 Whan he is siker of his goode name;
 Thanne hath he doon his freend, ne hym, no shame.
 And gladder oghte his freend been of his deeth,
 Whan with honour up yolden is his breeth,
 Than whan his name appalled is for age,
 For al forgeten is his vassellage.
 Thanne is it best, as for a worthy fame,
 To dyen whan that he is best of name." (3047-56)

만물이 생성소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우주의 이치이므로 나이들어 이름을 더럽히기보다는 젊어서 명예롭게 죽는게 낫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Arcite가 죽으면서 한 "What is this world? What asketh men to have?"라는 독백을 다시 한번 읊어해 보자. Arcite의 말 속에는 결국 "What is this honour? Why asketh men to have honour?"라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Theseus의 아버지 Egeus는 Theseus처럼 인간사의 희로애락 뒤에 숨어 있는 만물을 포괄하는 신의 섭리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Palamon, Arcite와 다르나, 그의 다분히 종교적인 충고도 결국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얘기하는 Palamon과 Arcite의 독백 및 Venus, Mars, Diana 사당의 벽화의 한 변주곡에 불과하다.

"This world nys but a thurghfare ful of wo,
 And we been pilgrymes, passyng to and fro.
 Deeth is an ende of every worldly soore." (2847-49)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원만한 해결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거대한 원형경기장의 건축과 기사들의 화려한 행렬, 장엄한 장례식의 절차는 우리로 하여금 Palamon과 Arcite의 세계가 엄격한 형식과 세밀한 절차가 존중되는 치밀하고 빈틈없는 사회라는 환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질서가 필요하고 형식이 요구되었던 것은 그 질서의 틀로 감싸안아야 할 혼돈의 세계, 즉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우주와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의 갈길 잊은 모습들이 편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Knight's Tale*에는 Theseus로 상징되는 질서의 형식으로 다 담아내기에는 힘들 만큼의 그와는 반대되는 세계의 모습들이 섞여있다. Muscatine은 질서의 개념이 *Knight's Tale*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그 배후에는 이와는 적대적인 혼돈과 무질서에 대한 의식이 숨어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

Order, which characterizes the structure of the poem, is also the heart of the meaning. The

society depicted is one in which form is full of significance, in which life is conducted at a dignified, processional pace, and in which life's pattern is itself a reflection, or better, a reproduction, of the order of the universe. And what gives this conception of life its perspective, its depth and seriousness, is its constant awareness of a formidably antagonistic element - chaos, disorder - which in life is an everthreatening possibility, even 'in' the moments of supremest assuredness, and which in the poem falls across the pattern of the order, being clearly exemplified in the erratic reversals of the poem's plot, and deeply embedded in the poem's texture.¹⁵⁾

그리고 그는 또한, 우리는 *Knight's Tale*에서 “휘황하고 낭만적인 요정의 세계(glittering, romantic fairy-castle world)”를 발견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귀족적인 삶이라는 인상적이고 정형화된 건축물, 그 품위와 풍요, 규칙과 예법에의 관심이 끊임없이 위협하는 혼돈의 힘을 막는 유일한 성채가 되어, 그 힘과 지속적으로 충돌(The impressive, patterned edifice of the noble life, its dignity and richness, its regard for law and decorum are all bulwarks against the everthreatening forces of chaos, and in costant collision with them)”하는 장면만을 목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¹⁶⁾ 그의 말이 옳다. 우리는 *Knight's Tale*이란 정형화된 건축물 속에서 숨겨진 죽음과 고통, 혼돈의 이미지를 마주하게 되며, 그것은 Huizinga가 말한 바 “고귀하고 영웅적인 삶에의 환상(illusion of a high and heroic life)” 아래 숨겨진 “현실의 고통스런 불완전함(the painful imperfection of reality)”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Huizinga의 지적대로 기사도가 중세의 지배이념이었으며, 그 이데올로기가 현실로부터 계급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로서의 역할과 정치사회 발전을 해석하는 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면, 우리는 그 중세 기사도 정신이 *Knight's Tale*을 통해 그대로 구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 *The Man of Law's Tale*

The Sergeant-at-law (“servientes ad legem”) were the King's legal servants, selected from barristers of sixteen years' attending. From their number were chosen the judges of the King's courts and the chief baron of the Exchequer. Those who were not regular judges sometimes went on circuit as “justices in assize”(1.314). They were few in number - about twenty when Chaucer wrote - and the most eminent members of the profession. They were addressed in the King's writ by the respectable plural “vos,” and had the privilege of wearing headcovering, the coif, in the royal presence.¹⁷⁾

The Complete Works of Geoffrey Chaucer (Robinson edition)의 Explanatory Notes에는 “고등변호사(Sergeant of the Law)”의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Chaucer의 Man of Law는 16년 이상의 “barrister” 경력을 필요로 하는 “Sergeant of the Lawe (*General Prologue*, 309)”였다.¹⁸⁾ 한편 “국왕의 보증에 의해 전권을 위임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순회재판의 재판관직을 맡았다(Justice he was ful often in assise / By patente and by pleyn commissioun [*GP*, 314-15])”는 *General Prologue*의 대목에서 드러나듯 왕실법정의 상임재

15) Muscatine, 181.

16) Muscatine, 189.

17) Robinson ed., 659 참조.

18) 이하 *General Prologue*에서 인용된 부분은 *GP*라고 표기하겠음.

판관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것 같으나, 그래도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임에는 틀림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특권을 누렸음직한 인물이다. 그리고 “보수와 법복(fees and robes [GP, 317])”을 많이 받았다거나, “그렇게 대단한 토지매입자(so greet a purchasour [GP, 318])”는 없었다거나 하는 표현은 그가 사회적 지위를 떠나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를 획득한 인물임을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 그는 여느 변호사들처럼 시민계급 출신이었겠지만, 그래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특권계급에 균접한 출세한 시민계급, 즉 실질적인 신분상승의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General Prologue*에서의 Man of Law에 대한 묘사는 Jill Mann의 지적처럼 “façade”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다. “현실은 보여줌이 없이 앞 모습만을 제시하는 것(to suggest a front without giving way the reality)”이 Man of Law를 묘사함에 있어 Chaucer가 사용한 방법이기에, *General Prologue*를 통해 나타나는 그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가 정말 어떤 인물인지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¹⁹⁾ 하지만 화자가 그를 “토지매입자(purchasour)”라고 한 점 그가 “보수와 법복(fees and robes)”을 많이 받았다고 한 점은 Jill Mann이 말한 바 “Sergeant의 행동에 희생된 사람의 존재 가능성(the possible existence of victims of the sergeant's behavior)”을 암시해 준다²⁰⁾. “purchasour”란 말은 그의 토지매입이 직업상의 업무를 떠나 투기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며, “fees and robes”는 그의 변호에 대한 정당한 댓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지식과 높은 명성때문에(for his science and for his heign renoun [GP, 316])” 얻어진 것이기에, 뇌물 수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Man of Law는 “하지만 그는 실제보다 더 바쁜 것 같았다(And Yet he semed busier than he was [GP, 322])”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겉치레에 신경을 쓰는 인물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기도 하다.

Chaucer의 *Man of Law's Tale*은 이러한 Man of Law를 화자로 하고 있으며, 시민계급에 의해 얘기되는 그 윗 계급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Man of Law는 그의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귀족 계급에 속할 수는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rhyme royal을 사용해 귀족적인 장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Man of Law's Tale*은 얼핏 *Canterbury Tales*의 다른 이야기들에서 보여지는 화자와 그가 하는 이야기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무시한 작품인 것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Man of Law가 시민계급 중에서도 상충부에 속하는 사람임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모든 부유한 시민계급의 목표가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는 Tuchman의 지적을 되새겨 볼 때 그가 격조높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현실적 위치와 잘 맞아 떨어지는 연결인지도 모른다.

*Man of Law's Tale*은 고급스런 문체로 써어진 로망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인간사의 고통을 포괄하고 주관하는 섭리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Knight's Tale*과 비슷한 차원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Man of Law's Tale*에서 우리는 *Knight's Tale*을 지배하면 공들여 꾸며진 장식과 의례적 절차 및 완만한 서술구조를 찾아볼 수 없다. 사실이 있다면 화자가 이야기 전개에 개입하는 부분에서 자주 나타나는 apostrophe가 있을 뿐, *Man of Law's Tale*은 *Knight's Tale*의 현란한 장식이 모두 사라진 끝결만이 남은 이야기이다. 그리고 *Knight's Tale*식의 완만한 진행 대신 빠른 사건

19) Jill Mann, *Chaucer and Medieval Estates Satire* (Cambridge: Cambridge UP, 1973) 91.

20) Mann, 90.

전개가 서술의 핵심을 이룬다. 서문(Instruction to The Man of Law's Tale)에서 *Man of Law*가 자신은 Chaucer처럼 “thrifty tale(46)”를 얘기할 능력이 없다고 하며, *The Legend of Good Women*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예로 들때, 그가 말한 바 “thrifty tale”는 “unkynde abhomynacions(88)”와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교훈적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Man of Law*가 Chaucer의 이야기를 “his sermons(87)”라고 부르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 하지만 *Man of Law's Tale*은 교훈적인 이야기임과 동시에 “thrifty tale”的 현대적 의미를 생각하는 절제되고 군더더기 없는 골격을 지닌 이야기이기도 하다.

*Man of Law's Tale*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얼핏 보기에 본래의 이야기와는 무관한 듯한 프롤로그이다. *Man of Law's Tale*의 프롤로그의 전반부는 “오, 저 주스런 악덕, 가난이여 !(O hateful harm, condicion of poverte! [99])”로 시작되는, 교황 Innocent 3세의 *De Contemptu Mundi*를 의역한, 가난에서 비롯되는 비참함과 죄악상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되어 있다(99-121). 그리고 나서 초점이 옮겨져 원천파는 무관한 “부유한 상인(riche marchantz [122])”에의 찬미가 이어진다(122-30).²¹⁾ *Man of Law*는 상인들을 “고귀하고 사려깊은 이들(O noble, o prudent folk [123])”로 칭송하며, “돈을 벌기 위해 바다를 건너 육지를 찾아가는 (seken lond and see for yowre wynnynges [127])” 그들에게 “소식과 이야기의 원천(fadres of tydynges / And tales [129-30])”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

여기서 우리는 *General Prologue*에 등장하는 Chaucer의 순례객인 Merchant를 생각하게 된다. *General Prologue*의 Merchant는 “플랑드르산 비버 모자(a Flaundryssh Bever hat [GP, 272])”를 쓰고 다니며, “Middleburg와 Orwelle 사이의 바다는 어떤 덧가를 치르고라도 지켜져야 한다(He wold the see were kept for anything / Bitwixe Middleburgh and Orwelle [GP, 276-7])”고 주장하는 점에서 *Man of Law*의 프롤로그에서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인들처럼 Merchant Venturer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재산의 증식(th'encrees of his wynnyng [GP, 275])”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고, “환전(eschaunge [GP, 278])”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대금업(chevyssance [GP, 282])”에도 능한 것으로 나타나,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고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Man of Law*의 프롤로그에서 무역상들과 겹하게 될 때, 우리는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General Prologue*의 Merchant에게서 받는 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한편 당대의 Merchant Venturer들이 직업상의 위험부담 때문에 유통마진을 지나치게 많이 남겨 교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Maurice Hussey의 지적은 비단 순례객 Merchant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대에 있어 무역 상인들의 사회적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

In this venture it was the merchant who stood to lose since he, like his primary manufacturer, had no advance orders to fill and simply hoped that he would find his market where he landed. In such a context we can more easily understand the title ‘Merchant Venturer’ that

21) 위 낙에 *De Contemptu Mundi*에서는 가난의 비참함에 대한 설명 다음에 “The rich man, however is undone by abundance and dissipated by ostentation”으로 시작되는 富의 비참함에 대한 대칭되는 설명이 이어진다. 그런데 자신의 프롤로그에서 *Man of Law*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원천을 왜곡했고, 이는 Chaucer의 의도적인 구도의 일부였다고 여겨진다. Alfred David, *The Strumpet Muse* (Bloomington: Indiana UP, 1976) 126을 참조할 것.

was given to one of their companies. Since merchants compensated themselves for their risks by making large profits, they were frequently under ecclesiastical criticism for the policy of buying cheap and selling dear. This seemed to the Church to be close to practice of usury, or money-lending at high interest rates.²²⁾

이러한 무역상에게 *Man of Law*는 “O noble o prudent folk,” “fadres of tydnges / And tales”의 칭호를 붙이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의 이야기는 외국을 드나들며 장사를 하는 바로 이 “marchauntz” 중의 한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며(131-133), 그 이야기의 발단은 시리아의 “일군의 부유한 상인들(a compaignye / Of chapmen riche[134-5])”이 로마로부터 그들의 Sultan에게 로마황녀 Custance의 소식을 가져온 데 있다. 그렇다면 원전을 잘못 인용하면서까지 끼워넣은 상인들에 대한 칭찬, 상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는 구성, 이야기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사건의 발원지로서의 시리아 상인은 모두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이러한 무역 상인에 대한 관심은 이야기 전체의 맥락에서 어떠한 중요성을 지니는가?

*Man of Law's Tale*의 여주인공 Custance는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기독교의 본산인 로마를 떠나, 궁극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일시적이나마 회교국인 시리아를 개종시키고, 영국의 노섬버랜드에 표류해서는 역시 이교 상태에 있던 땅을 혼자의 힘으로 기독교화 한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Custance의 이러한 포교활동이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이 프롤로그에서의 상인들에 대한 apostrophe 및 이야기 서두에서 등장하는 시리아 상인들의 모습과 연결되었을 때이다. 프롤로그의 상인들과 시리아 상인들은 모두 손실과 뜻하지 않은 모험을 감수하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는 중세의 무역상인들로 이들은 그 직업의 특성상 여러 나라의 소식과 풍물은 전하는 문화 사절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을 것이며, 그들이 전파한 풍물 중에는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배를 타고 미지의 땅을 찾았다는 이들 무역상의 모습과 이야기 속에서 전혀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역시 배를 타고 로마에서 시리아로, 시리아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다시 로마로 표류하며 기독교를 전파하는 Custance의 모습은 어딘가 닮은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Man of Law*가 자기 이야기를 상인들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한 점, 즉 상인의 입을 통해 말해진 선교의 이야기이고 수난의 이야기라는 점은 *Man of Law*에게는, 아니 적어도 그 이야기를 들려준 상인들에게는, Custance의 이야기를 통해 무역상인들의 위치를 神의 뜻을 전하는 선교사절로 미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Man of Law*는 Custance의 처지를 서서히 고개를 들던 중상주의의 새로운 조류와 같은 차원에서 대비시킴으로써, 프롤로그에서 말한 바처럼 정말로 상인을 “O nobel o prudent folk”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그는 비록 자신이 무역상은 아니었지만, 부상하는 시민계급의 일원이었다는 점에서, 발원하는 자본주의의 핵심세력이었던 무역상들과 그 이해기반을 함께 하고 있었을 것이다. Custance의 로망스가 *Man of Law*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Knight에게 주어진 Palamon과 Arcite의 로망스와는 달리 유력한 시민계급으로서의 화자의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는 *Man of Law*에 걸맞는 이야기로 변형되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Host는

22) Maurice Hussey, “Chaucer's England” in *An Introduction to Chaucer*, eds., Maurice Hussey, A.C. Spearing & James Winny (Cambridge: Cambridge UP, 1965) 36.

*Man of Law's Tale*에 대해 “A thrifty tale for nones(1165)”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Host의 이 반응은 서문(Introduction to the *Man of Law's Tale*)에서 *Man of Law*가 사용한 “thrifty tale”라는 말과 묘한 대칭을 이루며 칭찬보다는 풍자의 뉘앙스를 자아낸다. 이 “thrifty tale”라는 말은 *Man of Law's Tale*의 특성에 꼭 부합되는 단어이다. *Man of Law's Tale*은, 첫째, 앞서 말했듯이 군더더기 없는 빠른 템포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절제되어(thrifty)” 있고, 둘째, Arcite의 죽음이 보다 높은 차원의 섭리를 빌어 우주의 질서 속에 융해되고 Palamon을 통해 대리 보상을 받는데 반해, Custance의 고난은 모든 시련의 끝에 고향으로 돌아옴으로써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다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효율적(thrifty)”이다. 그리고 Custance가 겪는 역경이라는 표면적 플롯의 이면에 숨어있는 무역상에 대한 미화로 말미암아, 그 계산된 의도 때문에 화자에게는 “이로운 (thrifty: profitable)”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Man of Law*의 이야기를 듣고난 후 에필로그에서 보여지는 순례객들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만은 않다. *Man of Law*가 사용한 “thrifty tale”라는 말을 되받아 쓰는 Host의 경우도 그러하려니와, Parson을 가로막고 나선 Sipman의 불만섞인 말투는 더욱 그렇다.

“And I schal clynken you so mery a belle,
That I schal waken al this compagnie.
But it schal not ben of philosophie,
Ne phislyas, ne terms queinte of lawe.
Ther is but litel Latyn in my mawe!” (1186-90)

“ne terms queine of lawe”라는 말 속에는 *Man of Law*와 *Man of Law's Tale*에 대한 맹소적인 태도가 숨어있다. 특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순례객들을 깨워주겠다는 말에서 우리는 Shipman과 같은 부류의 청중들, 즉 *General Prologue*에 나오는, 사회적 지위가 *Man of Law*만 하지 못한 시민계급들은, 그 군더더기 없는 진행에도 불구하고 *Man of Law's Tale*을 굉장히 지루하게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받게 된다. Knight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Host는 그의 이야기를 “a noble storie (*Knight's Tale*, 311)”라고 평했으며, 어찌면 그것이 *Man of Law's Tale* 보다 훨씬 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Shipman처럼 비교는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Knight는 *Man of Law*를 비롯한 다른 어느 순례객 보다도 높은 세속적 신분에 속한 인물이었고, 게다가 사람들은 Knight가 자기 신분에 합당한 정말로 품위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품위있는 *Man of Law's Tale*에 대해 순례객들이 보이는 못마땅한 듯한 반응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앞서도 살펴본 바처럼 *Man of Law*가 Custance의 이야기를 빌어 사실은 중상주의를 옹호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 보다는 결국 자기네들과 마찬가지로 제3계급에 속해있는 *Man of Law*가 마치 고관대작인 양 행세하고 자기보다 높은 계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 반발이라고 보는 편이 나을 듯하다. 이러한 해석은 물론 무리한 것일 수도 있으나, 당대의 사회에서 *Man of Law*처럼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고자 하는 부유하고 유력한 시민계급과 대다수 그렇지 못한 시민계급 사이에, 오히려 전자와 귀족계급 사이에 존재했을 반목보다 더 큰 반목의 물이 퍼어져 있었으리라는 점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Chaucer는 *General Prologue*에서 Man of Law와 Merchant를 그렇게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Man of Law의 프롤로그와 이야기에는 그의 표리부동한 성격과 저속한 본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예를 들어 708-14행). 그러나 Chaucer는 한편으로 부상하는 시민계급과 그들의 사회적 기반의 하나인 상업의 힘에 대한 역사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Man of Law's Tale*에서 Custance의 행적이 무역상들의 활동과 묘한 평행을 이루도록 배려한 것은 단순히 그가 화자에 걸맞는 이야기를 만들려 했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현실의 변화를 어느 누구보다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4. *The Franklin's Tale*

Franklin은 *General Prologue*에서 Man of Law와 동행하는 인물로 나타난다(GP, 331).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가 Man of Law에 벼금가는 사회적 기반을 확보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우기 늘상 풍성한 그의 식탁은 그의 경제적인 넉넉함을 말해주는, 치안재판의 판사이자 “지역대표의원(Knyght of the Shire)”으로서의 그의 경력은 그가 자기 고장에서 내노라하는 유력한 인사임을 암시해준다. 위낙에 ‘franklin’은 토지를 소유한 자영농을 일컫는 것으로 귀족적인 태생의 지주에게 붙여지는 칭호는 아니었다. Explanatory Notes에 따르면, Franklin의 정확한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Henry Bradley 같은 사람은 그들을 gentry보다 낮은 계층이라고 보고 있는가 하면, Professor Gerould 같은 사람은 *General Prologue*의 Franklin이 gentleman 신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²³⁾ 그러나 그의 프롤로그와 이야기을 통해 보여지는 Franklin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gentry 이상의 위치에 있을지 모르나 신분상으로는 그보다 못해 계급에 속하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계급적인 핸디캡을 의식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순서상으로 *Franklin's Tale* 바로 앞의 이야기인 *Squire's Tale*의 마지막 부분에서 Franklin은 Squire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모로 보아 *Canterbury Tales*의 다른 이야기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Squire's Tale*과 그 화자인 Squire를 극구 칭찬한다(*Squire's Tale*, 673-81).²⁴⁾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망나니 같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Squire처럼 “그렇게 분별있는 사람(a man of swich discreciooun [SqT 685])”이 된다면, “20파운드 값어치가 있는 땅(twenty pound worth lond [SqT, 683])”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거라고 수선을 떤다. “twenty pound worth lond”와 “gentillesse”를 기꺼이 교환하겠다고 하는 Franklin의 말에는 한편 그가 *General Prologue*에서 묘사된대로 그만한 토지가 아깝지 않은 만큼 부유한 사람이며, 다른 한편 이런 경제적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적으로 Squire에 못미치는 신분이라는 두 가지 암시가 함께 들어가 있다. 또한 우리는 그가 아들이 “any gentil wight(SqT, 693)”와 어울리기 보다는 “page (SqT, 692)”와 어울리기를 좋아함을 한탄하는 대목에서, 그가 바라는 “gentillesse”가 존경할 만한 심성으로서의 “gentillesse”라기 보다는 그가 도달하지 못한 gentry 계급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단어로서의 “gentillesse”임을 짐작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특권계급의 가치관을 추종함으로써 신분상승을 피하는 사람으로서의 Franklin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Franklin의 속성은 그의 프롤로그에서도 잘

23) Robinson, ed., 659.

24) 이하 *Squire's Tale*에서 인용된 부분은 SqT로 표기하였다.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수사술(rethorik)”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소박한 사람(a burel man [716])”이므로 “자신의 무례한 언변(my rude speche [718])”을 용서 달라고 양해를 구하나(716-720), 실제로 있어서는 Marcus Tullius Scithero를 들먹거리고 온갖 수사법을 사용해 자신의 “rethorik”을 뽑내고 있다(721-27). 즉 Franklin은 한편으로 자신의 신분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굉장히 “gentil”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Franklin의 이야기가 *Man of Law's Tale*과 같이 고급스런 문체로 기사계급의 이야기를 다룬 그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내용임은, *Squire's Tale*의 결미 및 그의 프롤로그를 통해 드러난 Franklin의 성격과 잘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Franklin's Tale*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순례객들에게 “누가 가장 관대했다고 생각하는가(Which was the mooste fre, as thynketh yow? [1622])”하고 묻는 질문, 즉 진정한 “gentillesse”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Franklin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Franklin의 “gentillesse”의 표본으로 내세운 세 명의 인물은 기사인 Arveragus와 Squire인 Aurelius, 그리고 오틀레앙의 마법사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Franklin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들 세 사람의 “gentillesse”의 본질을 규명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Dorigen이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높은 가문 출신(Comen of heigh kynrede [735])”이어서 “그녀에게 감히 자신의 슬픔과 고통, 비애를 털어 놓기가 쉽지 않았다(That unnethes dorste this knyght drede, / Telle hire his wo, his penye, and his distresse [736-7])”는 대목을 통해 Arveragus가 “기사(knyght)”라고는 하나 Dorigen보다 낮은 신분 출신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얻게 된다. 즉 Arveragus는 결혼을 통해 Franklin이 꿈꾸던 신분상승을 이룬 인물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Dorigen이 Arveragus와 결혼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유순한 복종심(his meke obeysaunce [739])” 때문이었다는 말에서, 그리고 남편은 “명복상의 지배권(name of soverayntee)”만을 가지며 실제적인 지배권은 아내가 가진다는 Arveragus의 맹세(745-52)에서 Arveragus와 Dorigen의 결혼이 애초에 여자에게 유리한 종류의 결혼이었음이 밝혀진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Arveragus의 신분적 열세는 이러한 결혼계약이 둘 사이의 동등하지 않는 신분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해 주기나 하는 듯이 다음 대목에 이르면 여자에게 우월권이 주어지는 것 같던 결혼관이 “사랑함에 있어서는 하인이고 결혼생활에 있어서는 주인(Servant in love, and lord in marriage [794])”이라는 말에 의해 남녀가 대등한 결혼관으로 바뀐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속이라고? 아니다. 지배가 우선이다(Servage? nay, but in lordshipe above [796])”라는 묘한 표현에 의해 애초에 제시되었던 이론이 완전히 전도되어 버리고 만다.

이러한 궤변에 가까운 결혼관의 전제 하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Arveragus가 갖기로 한 “name of soverayntee”的 성격이 과연 어떠한 것이며, 그의 “worthynesse (738)”, 즉 “gentillesse”的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는場이 된다. Dorigen이 Aurelius에게 Britayne 해안의 바위들을 깨끗이 없애 준다면 그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한 것은 첫째,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그 따위 어리석은 생각일랑 마음속에서 없애 버리세요(For wel I woot that it shal never betyde, / Lat swiche folies out of youre herte slyde [1001-2])”라고 곧이어 덧붙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Aurelius의 청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불가능한 요구였다. 그리고 둘째, Arveragus의 무사한 귀향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Aurelius가 마법의 힘을 빌어 바위를 없애버리고 Dorigen에게 자신의 청을 들어 달라는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Arveragus는 아내가 그런 약속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일말의 호기심도 보이지 않고 “흔쾌하고 다정하게(with glad chiere, in freendlywise [1467])”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인양 “약속은 지켜야한다(Ye shul youre trouthe holden, by my fay! [1474])”고 말한다. 그것도 “Ye wil youre trouthe holden”이 아니라 “Ye shul youre trouthe holden”인 것이다. 앞서 “지배를 하려 할 때 사랑의 신은 곧 날개를 펴고 며난다(When maistrie comth, the God of Love anon / Beteth his wynges, and farewel, he is goon! [765-6])”고 했던, Arveragus와 Dorigen의 결혼에 대한 Franklin의 찬사는 이 대목에 이르면 Arveragus의 강압적인 태도와 대비되어, 애초에 Dorigen에게 했던 그의 맹세가 얼마나 가식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이제 “name of soverayntee”는 명실상부한 지배권으로 변화한다. 더우기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딴 남자에게 몸을 바칠 것을 강요하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비밀로 할 것을 다짐받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중요시한 명예가 무엇이며, 그의 “gentillesse”가 무엇을 위한 “gentillesse”인가를 알게 된다.

“I yow forbede, up peyne of deeth,
That nevere, whil thee lasteth lyf ne breeth,
To no wight telle thou of this avanture,”(1481-83)

그에게 있어서는 타인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손상되는 자신의 명예가 아내의 정절을 빼앗김으로서 손상되는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며, 아내가 정절을 빼앗겼다는 사실보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는게 훨씬 더 치욕스러운 일이다. 사실은 그가 Dorigen에게 주었던 지배권이 “name of soverayntee”였으며, 그의 “gentillesse”는 자기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위해 서라면, 아내의 정절 쯤 “흔쾌하게(with glad chiere)” 회생시킬 수 있는 결단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다시 돌아온 Dorigen을 “여왕처럼 섬겼다(He cherisseth hire as though she were a queene [1554])”는 말에서 우리는 그 말의 겹침 아래 숨겨진 그와는 정반대되는 진실이 있음을 보게 된다.

한편 Aurelius는 겉보기에는 courtly lover의 전형인 것처럼 그려진다. 그리고 로망스의 기사처럼 흡모하는 부인과의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Dorigen과 맺은 약속은 사실상 약속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다. Aurelius는 Dorigen이 그를 거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건 불가능한 조건을 사랑의 약속으로 받아들인 채, 즉 Dorigen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그 약속을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실행하려고만 하는 것이다. 결국 그는 마법사의 도움을 얻어 약속을 실행하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약속의 이행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Dorigen의 요구대로 Britayne 해변의 바위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환상을 만들어 낸 것 뿐이다. 따라서 애초에 약속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Aurelius가 자신을 찾아온 Dorigen을 돌려 보내는 것은 “gentillesse”라고 부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우기 마법사에게, Arveragus가 “아내로 하여금 약속을 깨게 하느니 슬픔과 번민 속에 죽는 편을 택했다(Hadde levere dye in sorwe and in distresse / Than that his wyf were of hir trouth fals [1595~97])”고 하면서 Arveragus의 “gentillesse”에 감동해 Dorigen을 돌려 보냈다고 말하는 Aurelius에게서 우리는 그의 “gen-

tillesse”도 그를 감동시킨 Arveragus의 “gentillesse”의 차원에서 크게 나아진게 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면 마법사의 “gentillesse”는 어떠한 것인가? Franklin은 그가 Arveragus와 Aurelius 두 사람의 “gentillesse”에 감동해 Aurelius로부터 받기로 한 1,500파운드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또한 Arveragus 및 Aurelius와 함께 “관대한(fre)” 인물들의 대열에 끼워두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환상만을 만들어 내었을 뿐 실제로에 있어 보수를 받을 만한 눈에 보이는 수고를 한적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일도 하지 않은 그가 아무런 댓가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며, 결코 “gentillesse”라고 이름붙일 만한 것이 아니다.

결국 “누가 가장 관대했다고 생각하는가? (Which was the mooste fre, as thynketh yow?)”라는 질문에 대한 독자의 대답은 아무도 진정한 의미에서 관대하지 못했다는 것이 된다. Arveragus, Aurelius, 마법사가 보여준 “gentillesse”는 모두 마법사가 만들어 낸 환상처럼 겉껍질만 존재할 뿐 내용이 없는 거짓된 “gentillesse”였다. 여기서 우리는 Franklin이 생각한 바 귀족계급과 귀족계급의 속성인 “gentillesse”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된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화자인 Franklin에게 눈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그에게서 *Knight's Tale*의 화자인 Knight가 구현하고 있는 귀족계급의 가치관을 추종하고 그 계급에 속하기를 원하나, 끝내 거기에 속할 수 없고, 다만 그 가치관의 왜곡된 허상만을 허망하게 쫓는 인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Chaucer가 *Franklin's Tale*에서 비판하고자 한 것이 있엇다면, 그것은 “gentillesse”를 이상으로 하는 사회, 즉 Huizinga가 말한바 “Lancelot과 Tristram의 가면”을 쓴 사회가 아니었으며, 그 이상이 변질되어가고 붕괴되어가는 현실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가 창조한 Franklin과 *Franklin's Tale*은 그가 무조건적 신분상승을 피하는 부유한 시민계급의 실태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았는가 하는 한 증거가 된다.

5. *The Physician's Tale*

Barbara Tuchman은 *A Distant Mirror*의 “‘This is the End of the World’: The Black Death”라는 章에서 흑사병 만연의 결과 높아진 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n their purple or red gowns and furred hoods, doctors were persons of important status. Allowed extra luxury by the sumptuary laws, they wore belts of silver thread, embroidered gloves, and according to Petrarch's annoyed report, presumptuously donned golden spurs when they rode to their visits attended by a servant. Their wives were permitted great expenditure on cloth than other woman, perhaps in recognition of the large fees doctor could command.²⁵⁾

의사들의 사치가 일반적이었다는 지적과 그들이 “유력한 위치에 있는 인사(persons of important status)”였다는 말에서, 우리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Man of Law나 Franklin 못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General Prologue*의 Doctour of Phisik은 Tuchman이 설명한 의사들의 모습 그대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차림에 (GP, 439-40), 흑사병이 창궐하는 틈을 타 많은 돈을 벤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GP, 442). 한편 그는 “황금이 의학에 있어

25) Tuchman, 106.

강심제이고 따라서 금을 특별히 좋아한다(For gold in phisik is a cordial, / Therefore he lovede gold in special[GP, 443-4])”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금전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으로, 표면적으로는 “그의 엉터리의술과 탐욕의 희생자(the victims of quackery and greed)”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는 *Man of Law*의 경우에서처럼 “진실하고 완벽한 개업의(a verray, parfit praktisour[GP, 422])”인 그의 결모습 뒤에 숨겨진 비리의 가능성 을 읽어낼 수 있다.²⁶⁾

이러한 Physician의 이야기는 앞서 살펴본 *Man of Law's Tale*이나 *Franklin's Tale*처럼 화자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런 문체의 이야기, 즉 Livy를 원전으로 한 로마 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이 또한 *Man of Law*나 *Franklin*의 경우처럼 귀족계급의 이념 으로 자신의 정체를 규정하려는 상충 시민계급의 신분상승의 욕구를 반영하는 일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Physician은 *Virginia*란 소녀의 “뛰어난 미모(excellent beautee [7])”를 묘사하면서 자신의 이야기의 서설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녀의 미모가 뛰어나기는 하지만, 그녀는 그보다 수천배 더 덕스러웠다(And if that excellent was hir beautee, / A thousand foold moore vertuous was she [39-40])”고 말해 *Virginia*의 미모보다는 덕성이 그녀를 규정하는 보다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는 26행에 이르는 적지 않은 부분(41-66)을 그녀의 이러한 미덕을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여기서 그녀의 미덕으로 지적되는 “분별(discretion[42]),” “순결(virginitie[44]),” “겸손과 절제(humylitee and abstinence [44]),” “중용과 인내(attemperaunce and pacience [46]),” “덕성과 예의범절(vertu and gentillesse [54])” 등은 살아있는 한 구체적인 인간으로서의 *Virginia*의 성격을 말해주는 단어라기 보다는, 인습적으로 전해 내려온, 여성의 갖추어야 할 도덕적 소양의 분별없는 나열인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Nature*의 목소리를 빌어 *Virginia*의 미모에 대한 장황한 감탄사를 연발한 후 그녀의 미덕을 칭찬하는 것은, 그녀가 아름다운 것보다 수천배 더 덕스러웠다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 “덕성(bountee)”이라는 것이 “미모(beautee)”와 무관한 독립변수가 아니라 미모의 종속변수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 뒤에 나오는 가정교사와 부모의 책무에 대한 난데없는 사설은 열핏보기에는 이야기의 전개와 전혀 별개의 내용인 것처럼 들린다. Physician이 가정교사와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말할 때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순진무구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keeper로서의 어른들의 모습이다. 그는 한 때 도둑이었던 사람이 “숲을 누구보다도 잘 지킬 수 있다(Kan kepe a forest best of any man [85])”고 말하는 한편, 그들에게 아이들을 “잘 지켜 달라(Now kepeth wel [86])”고 당부하기도 한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자식을 감독할 책임(the charge of hir surveiaunce [95])”이 있다고 말하며, 자식을 감독하는 부모의 위치를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는 양치기의 위치에 비유한다(101-2). 뿐만 아니라 Physician은 *Virginia* 애달로 “자신을 잘 지키므로(So kepte hirself [106])” 그녀에게는 가정교사가 필요없다고 덧붙인다.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keeping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keeping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어지는 *Virginia*와 *Virginius*의 이야기로부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Virginia*를 차지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꾸며진 *Apius*의 부당한 재판의 결과

26) Mann, 91 참조.

“죽느냐 수치를 당하느냐 하는 갈림길(Ther been teo weyes, outher deeth or shame [214])”에서, Virginius가 Virginia를 죽게 해 그녀의 순결(virginity)을 지킨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앞서 말한 keeping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그 뜻은 자명해진다. 다른 이야기의 프롤로그 부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Physician의 긴 사설에서 강조되고 있는 keeping은 다름아닌 순결(virginity)에 대한 keeping인 것이다. 가정교사와 부모가 아이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한껏 말한 뒤 그 예로써 제시되는 이야기가 딸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딸을 죽인 아버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순결(virginity)은 구체적으로 어떤 순결(virginity)인가?

이야기의 앞 부분에 나오는 Virginia의 “미모(beautee)”와 “덕성(bountee)”에 대한 장황한 친사는 겉보기에 육체의 “美(beautee)”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의 “德(bountee)”임을 말해주는 듯하다. 즉 정신적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Apius가 “Virginia의 미모(beautee of this mayde [127])”에 반했다는 부분과 그녀의 유력한 친구들은 물론 “지고한 덕성(soverayn bountee)” 때문에 “그는 그녀를 설득해 육체의 죄를 짓도록 만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That wel he wiste he myghte hir nevere wynne / As for to make with hir body synne [137-8])”는 대목에서, 우리는 그가 노리는 것이 Virginia의 육체의 “미모(beautee)”이며, “지고한 덕성(soverayn bountee)”은 단지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그 “미모(beautee)”를 지키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Virginius가 추호의 갈등도 없이 육체의 순결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고 딸을 설득하는 장면은 결국 Virginia가 상징하는 바 순결(virginity)이 육체만의 순결일 가능성성이 높음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그리고 Physician의 이야기를 듣고 난 Host의 반응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그렇게 불쌍하게 죽은 데 대한 연민에만 집중되어 있음은 이러한 의심을 부추기게 하는 또 하나의 배려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 일으킨다. Host는 “그녀의 아름다움이 너무 비싼 값을 치렀다(Allas, to deere boughtire she beautee! [293])”고 한 뒤, “운명의 여신과 대자연의 선물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다(That yifte of Fortune and of Nature / Been cause of deeth to many a creature [295-6])”고 말해, 미인박명을 안타까워 할 뿐 앞서 장황하게 설명된 Virginia의 “덕성(bountee)”에 대해서는 전혀 애석해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Seint Ronyan에 걸고 Physician이 “a propre man (309)”이며 “a prelat (310)”이라고 말하는 Host의 비꼬는 듯한 반응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나 농담거리(som myth or japes [319])”를 들려 달라는 Host의 주문에 다시 Seint Ronyan에 걸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Pardoner의 대답은 Ronyan 혹은 Ronyon이라는 이름이 갖는 pun으로 인해 “loin”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며 이러한 연상은 궁극적으로 Virginia의 순결을 loin의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구실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Franklin이 Arveragus와 Dorigen의 결혼을 애초에 여자에게 지배권이 있는 결혼인 것처럼 그렸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론이 전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Physician 역시 Virginia의 “미모(beautee)”보다 수천 배 더 가치있는 “덕성(bountee)”에 대해 역설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해 결국은 육체만의 美와 순결의 문제로 이야기를 귀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Physician의 육체적 순결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는 Frankli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가 생각하는 “gentillesse”가 인간성을 규정하는 고결한 성품으로서의 “gentillesse”가 아닌 외양만의 “gentillesse”, 즉 그가 접근하고자 하는 귀족계급의 계급적 속성이자 규범으로서의

“gentillesse”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우기 Physician은 “아주 슬픈 마음으로 딸의 목을 잘라 그 머리 타래를 들고 판관에게 찾아가 그것을 준(with ful *sorweful* herte and wil,/ Hir heed of smoot, and by the top it hente, / And to juge he gan it to pressente[254-6])” 아버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비정한 침착성과 과단성을 보여주고 있는 Virginius를 “명예와 용기로 가득찬(Fulfil of honour and of worthynesse [3])” 홀륭한 기사라고 함으로써, honour와 worthynesse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성을 상실한 채 눈에 보이는 체면과 형식에만 집착하는 기괴한 literalism의 차원으로 비하시키고 있다. 또한 Host의 반응대로 “듣기에 연민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a pitous tale for to heer [302])”인 Virginia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죄를 지은 자는 응당 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 “죄가 너희를 망치기 전에 죄를 벼려라(Forsaketh synne, er synne yow forsake [286])”라는 아주 엉뚱한 인파옹보의 결론을 끌어냄으로써 Physician은 자신이 들려준 이야기의 진정한 중요성과 의미를 자신도 제대로 모르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Franklin의 또 다른 복사판을 발견하게 된다. Franklin이 보여준 “gentillesse”的 모범들이 모두 거짓된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듯, Physician이 들려주는 고급스런 이야기도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그 본질의 왜곡된 외형에만 집착하는 Physician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General Prologue*의 Physician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인물이었으나 결국 귀족계급은 아니었듯, *Physician's Tale*은 그가 화려한 외양과 당당한 태도 뒤에 그에 걸맞는 “gentillesse”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6. Chaucer의 통찰력

*Canterbury Tales*의 Knight는 Clerk, Parson, Plowman과 함께 *General Prologue*에 등장하는 몇 안되는 이상적인 순례객의 한 사람이다. 그는 기사도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덕목에 충실했던 진정한 기사이며, 그의 이야기는 Huizinga가 말한 바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사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내용이었다. *General Prologue*에 나타난 Knight의 모습이나 *Knight's Tale*을 통해 접하게 되는 기사도의 세계에서, 우리는 의식적인 풍자의 혼적을 발견하기 보다는 종교적인 차원으로까지 승화된 귀족적 미덕에 대한 Chaucer의 긍정적인 시각을 보게 된다. 하지만, Knight에 대한 묘사 속에는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그의 끊임없는 종군의 적극적인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Jill Mann의 지적에서, 우리는 Knight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받게 된다.

If we examine the Knight's portrait closely, we see that the immediate ends of his professional activities are undefined. Is it their aim conversion of the heathen? or their extermination, to make for the permanent occupation of the Holy land by Christians? The Knight's role, as it is described in his portrait, is merely to fight, win, and move on. One might say that his campaigns have a religious character, but not a religious aim.²⁷⁾

“우리의 신앙을 위해 싸운다(foughten for oure feith [GP, 62])”는 암시만 주어질 뿐 정확히 그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 지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우리는 이 때문에 Knight가 Chaucer의 날카로운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막연히

27) Mann, 115.

싸우고 또 싸우는 용감한 Knight의 모습은 자칫 기사도라는 시대착오적인 이상이 현실과 유리되어 나타남으로써 만들어진 인간형의 극단적인 표본인 돈키호테의 차원으로 회화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Chaucer의 세심한 배려가 독자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공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이야기에서 Knight가 Theseus라는 인물을 내세워, 그리고 정교한 형식적 구도로, 부여하려했던 질서의 이면에 숨겨진 혼돈의 현실은 인간이 이유없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세상사 전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한 걸음 나아가 기사도란 질서로 해석하고 치장하기에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현실, 즉 Man of Law나 Franklin, Physician 같은 사람들의 입장이 점점 거세어져 가는, Knight가 보기에 혼돈에 가까웠을 당대의 현실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Chaucer는 Knight란 인물과 그의 이야기를 통해 규범으로서의 기사도 정신이 한 개인과 허구적 세계를 통해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울러 그러한 규범의 뒤에는 그 규범만으로 감싸안기에는 너무 벽찬 변혁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Chaucer의 이러한 중립적인 입장은 귀족계급의 Knight가 아닌 Man of Law나 Franklin, Physician 같은 시민계급을 보는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Barbara Tuchman에 따르면 14세기에는 “비취득성 사회의 이론(theory of nonacquisitive society)”이 쇠퇴하고, 이미 “잉여 재산의 축적(accumulation of surplus wealth)”이 비판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시대의 풍자에서 보여지듯 시민계급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부정적이었던 듯하다.²⁸⁾

In *Renart le Contrefait*, a satire of the time, the wealthy bourgeois enjoy the best estate of all: “They live in a noble manner, wear lordly garments, have falcons and sparrow hawks, fine palfreys and fine chargers. When the vassals must go to join the host, the bourgeois rest in their beds; when the vassals go to be massacred in battle, the bourgeois picnic by river.”²⁹⁾

*General Prologue*에서 보여지듯 Chaucer 역시 시민계급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견해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다. Chaucer는 *General Prologue*에서 타락한 성직자 계급과 함께 시민계급을 주 풍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Chaucer의 역사적 안목의 예리함은 그를 귀족계급의 이념에 젖어, 그 이념의 옹호자이자 전파자로서, “귀족을 사회세력이 경점으로 여겼으며 거기에 매우 과장된 중요성을 부여한 반면 하층계급의 사회적 중요성을 완전히 파소 평가한(They persisted in regarding the nobility as the foremost of social forces and attributed a very exaggerated importance to it, undervaluing altogether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e lower classes)” 그 시대의 연대기 사가들로부터 분리시켜 놓는다.³⁰⁾

Canterbury Tales의 *General Prologue*에는 Chaucer 자신을 제외하고 27명의 순례객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 반 수 이상인 17명이 제 3 계급에 속하는 인물들이며, 그들 대부분은 부유한 시민계급으로 둑기에 합당한 경제적 기반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거나 암시되고 있다. 물론 Chaucer는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에 *General Prologue*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기는 했으나, 수적으로 보면 시민계급이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Huizinga는 당대 사람

28) Tuchman, 157.

29) Tuchman, 157.

30) Huizinga, 57.

들이 생각하던 시민계급의 유형이 “일하는 노동자나 근면한 장인 혹은 분주한 상인들의 모습 속에 한해의 일과를 나타낸 성당의 저부조(those bas-reliefs of cathedrals, representing the tasks of the year in the shape of the toiling labourer, the industrious artisan, or the busy merchant)”처럼 단순하다고 했으나, Chaucer의 *General Prologue*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단순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³¹⁾ 단순화되기에는 너무나도 세분화된 직업의 너무나도 생생한 인물들에 의해 채색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Jill Mann이 주장한 바 *Estates Satire*의 전통에서도 결코 흔히 보여지는 현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Chaucer and Medieval Estates Satire*의 부록으로 실린 “A list of the order in which the estates are presented in some representative poems”를 살펴볼 때, 예로 들어진 21개의 작품 중 시민계급이 *General Prologue*에서처럼 비교적 분화되어 나타나는 작품은 *Chessbook* 하나 밖에 없다는 점은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³²⁾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그 전조를 드리우던 역사의 변환기를 산 작가로서의 Chaucer는 그 역사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한편으로 사라져가는 옛 시대의 이상에 존경심을 표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계급의 현실적 위치를 역사의 필연으로 받아들였다. *Man of Law*나 *Franklin, Physician*은 이러한 과도기의 시민계급이 지녔던 특성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인물들이었다.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상승일로에 있던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한편 Chaucer에게 그들의 귀족에 대한 무비판적인 모방으로 하여,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Chaucer가 그들에게 귀족적인 이야기를 할당한 것은, 그들의 사고의 깊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음을 그가 인정했다는 증거가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Man of Law's Tale*, *Franklin's Tale*, *Physician's Tale*을 무분별하게 상층계급의 규범을 지향하는 시민계급, 즉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계급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자로써 재어보았으나, Chaucer의 이러한 비판적 의도를 무시한다고 해도, 그 각각의 이야기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홀륭한 짜임새를 지닌 교훈적인 작품들이다. 아니 Chaucer가 일차적으로 의도한 것은 이야기 속에 스며든 화자의 속성이란다 보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의미에 있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Chaucer의 역사적 통찰력은 지배이데올로기의 본질을 깨뚫어본 혜안에서도 부상하는 시민계급의 이데올로기의 허상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시민계급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Man of Law*나 *Franklin, Physician* 같은 사람이 남의 옷을 빌어 입고, 남의 언어를 빌어, 남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 할 그들의 시대의 이야기가 Arthur 왕의 전설과 기사의 맹세를 대체할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Chaucer는 그 시대에 대한 남보다 앞선 예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REFERENCES

- Huizinga, Johan. *The Waning of the Middle Ages*. New York: Doubleday Anchor, 1924.
 Hussey, Maurice, A. C. Spearing, & James Winny, eds. *An Introduction to Chaucer*.

31) Huizinga, 59.

32) Mann, 203-6 참조.

- Cambridge: Cambridge UP, 1965.
- Mann, Jill. *Chaucer and Medieval Estates Satire*. Cambridge: Cambridge UP, 1973.
- Muscatine, Charles. *Chaucer and the French Traditio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3.
- Tuchman, Barbara W. *A Distant Mirror: The Calamitous 14th Century*. New York: Ballantine Books, 1976.
- 아놀드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고대중세 편」, 백낙청 譯.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6.